

# 무역보험공사, 국내채권 2.5조 사실상 회수불가능 'F등급'

총 채권잔액 3.9조의 64% 해당 D·E등급 상각채권 7500억, 19%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 78건 10.1억달러 중 2.6억달러만 회수

김정재 의원 "무역보험, 혈세 운영 손실 최소화 위한 노력·체계 필요"



김정재 의원

〈국내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따른 분류현황 및 등급별 채권잔액현황〉

(단위: 억원)

구분	A	B	C	D	E	F	기타
기준	전액 회수 가능	5천만원 이상 회수 가능 예상	5천만원 미만 회수 가능 예상	예상구상 실적 없음	상각 채권	워크아웃, 회생, 파산 채권	평가중
현황	채권잔액 (21.7월말)	33	4,247	2,337	4,196	3,339	24,918
	비중	0.1%	10.9%	6.0%	10.7%	8.5%	63.7%
				10.7%			0.1%

/자료=김정재 의원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채권 중 2조4918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채권 역시 발생금액의 약 70%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한국무

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 채권잔액은 3조9099억원으로 이 중 63.7%에 해당하는 2조4918억원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 채권이다. 또한 채무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채 예상구상실익이 없거나 손실처리된 상각채권인 D, E등급 채권도 7535억원(19.3%)이었다.

이 외에 ▲전액 회수 가능한 A등급 채권은 33억원(0.1%) ▲5000만원 이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B등급 채권은 4247억원(10.9%) ▲5000만원 미만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C등급 채권은 2337억원(6.0%) ▲예상구상 실적없다고 판단되는 D등급 채권은 10.7%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외채권 역시 대부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고액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는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은 총 78건, 10억1485만 달러로 이중 회수된 채권은 고작 2억6047만 달러(25.67%)에 불과했다. 미회수채권금액

만 7억5438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지금 까지 단 한 차례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도 45건, 4억707만 달러로 조사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무역보험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보험을 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채권 회수를 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유럽진출 눈앞

EMA에 '렉키로나' 품목허가 신청 글로벌 임상서 안전·유효성 확인 유럽연합 집행위서 유망치료제 선정

셀트리온은 지난 1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에 대한 정식 품목허가(MAA)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적응증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진된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로,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이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말 렉키로나의 EMA 롤링 리뷰(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 절차가 시작된 지 7개월만으로, 지난달 자료 보완 수령을 거쳐 최종 정식 품목허가(MAA)를 제출하게 됐다.

EMA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당시 임상 시험 중이었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에 대한 롤링 리뷰에 착수해 현재까지 심사를 진행해 왔다. EMA는 검토 과정에서 셀트리온이 제출한 각종 데이터가 정식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정식 품목허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셀트리온은 EMA가 롤링 리뷰를 통해 각종 데이터에 대한 검증 과정을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정식 품목허가가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렉키로나는 앞서 6월 글로벌 임상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유망 치료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는 한

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전세계 13개국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렉키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군에선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전체 환자에선 70% 감소했으며,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에선 위약군 대비 4.7일 이상, 전체 환자에선 4.9일이 단축되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지난 9월 17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한 렉키로나는 지난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기준 국내 114개 병원 1만 6862명의환자에게 투여돼, 국내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리움미술관 1년7개월 만에 재개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 '리움미술관 재개관 프레스 프리뷰'에서 취재진이 미술관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1년 7개월 만에 재개관하는 리움은 한국 전통미술과 국내외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상설전을 새로운 주제로 개편해 지금까지 전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오는 8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뉴스

##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 4분기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 주의'

» 1면 '반도체·가전 주력사업'서 계속

변수는 있다. 최근 미국 GM이 쉐보레 볼트EV의 배터리 등 결함으로 리콜을 진행 중인데, LG전자도 총당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2분기에도 잠정 실적에 총당금 2500억원 가량을 반영해 변동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실적이 '꼭지'라는 우려도 크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특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 등 여러 악재들이 이어지면서다.

가장 큰 공포는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이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서버 업체 등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수요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는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고 수익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쇼트지 현상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역시 위기다. 카운터

포인트리서치는 최근 스마트폰 전망 보고서를 새로 펴면서 올해 출하량 전망을 전년 대비 6%로 3% 포인트 대폭 하향조정했다. 부품 공급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출하량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전도 마찬가지다. TV가 구동칩 등 핵심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운데, 물류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성 축소 뿐 아니라 시장까지도 쪼그라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업계는 4분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는 가운데, 신사업을 육성하며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팹 증설과 평택 사업장 추가 투자 등 파운드리 투자 확대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LG전자 역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사 설립 등 전장 사업 강화와 인공지능 및 로봇 등 미래 사업에 무게를 더하는 모습이다.

/김재용 기자 juk@